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허정철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eong-Cheol Heo(jcheo@kw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 영역 가운데 결정성, 준비성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현실성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 하위 영역 가운데 탐색행동, 준비행동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여대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위해 더욱더 체계적인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로 활용도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 진로태도성숙도 | 진로준비행동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ow what influence a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has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in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eterminacy and readiness in the sub-area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ality. Also,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xploration and preparatory behavior in sub-areas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uch results indicate that the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had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o enhance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in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urther organized research on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s is needed and its utilization should be increased.

■ keyword : |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 Career Attitude Matur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I. 서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Tolbert[1]에

의하면 개인이 선택한 직업과 진로는 그의 능력발휘의 기회, 인간관계, 사회 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관계, 거주지 등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며, 한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하고

접수일자 : 2013년 07월 17일

수정일자 : 2013년 08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8월 23일

교신저자 : 허정철, e-mail : jcheo@kwu.ac.kr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를 떠나 새로운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진로선택은 당연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진로 선택이 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줄곧 입시공부에 매달려왔고 전공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수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거나 부모님들의 기대로 인하여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를 찾기 위해 고민한다는 자체가 생소하다. 즉, 자신이나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며, 대학에서도 역시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정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2]. 그러므로, 대학생활 속에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진로탐색과 직업세계 탐색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욕구가 증가되는 것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국 대학생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로에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보면, 자신의 전공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수업시간이 힘들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다는 호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또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취업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여 자신의 역량을 길러 나가야할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문제의식조차 없는 학생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 동안 자신의 성격, 자신의 흥미, 적성 그리고 자신의 현재 환경 등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인의 진로지도를 조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진로집단상담이다. 진로상담은 개인상담의 형태보다는 집단상담 또는 교과목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3].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로발달 과업은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하고, 그에 맞는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이 어떻게 변화 하는가를 연구해 보는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대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진로태도성숙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가?

둘째,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대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이형득[4]은 진로집단상담을 비교적 적은 수의 정상인들이 한 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집단 혹은 상호관계성의 역할을 토대로 하여 신뢰와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 혹은 한층 높은 수준으로 개인의 성장·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 대인관계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장호·김정희[5]는 진로 집단상담이란 생활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의 지도와 동료들과의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각자의 감정, 태도, 생각 및 행동양식 등을 탐색 이해하고 보다 성숙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영석[6]은 진로집단상담이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영위하기 위한 진로집단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이며,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친밀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 자신과 외부세계와의 관계

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내담자가 집단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피드백으로 인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집단구성원들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집단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탐색해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음으로 개인상담에서 얻을 수 없는 면을 보완하는 이점이 있다[7]. 장혜숙[8]은 진로집단상담은 집단 활동을 통하여 자기이해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상담자와 동료집단들이 함께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란 집단활동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기본 욕구를 파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성숙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진로교육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2. 진로태도 성숙도

Super[9]는 진로성숙이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로 주장하였다. Crites[10]는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라고 하였다. 장석민 외[11]는 진로성숙을 발달적 개념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 정도 개념으로 통합하고,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할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였다. 지용근[12]은 진로태도성숙이란 진로성숙에서 진로선택, 결정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독립적이고, 확고한 태도의 발달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송태우[13]는 진로태도성숙도를 진로의식, 탐색, 선택, 의사결정에서 발전적 변화의 개념으로서 개인의 진로를 탐색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 나가는 준비성이라고 하였다. 염주연[14]은 진로태도성숙이란 진로를 선택 결정할 때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즉 능력, 적성, 흥미, 가치관, 신체적 조건, 환

경 조건을 알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으로 나아가는 개인의 진로발달의 정도라고 하였다. 최경희[15]는 진로태도성숙이란 개인이 진로선택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진로태도성숙도를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하는 정도, 개인적·상황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정도,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준비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결정성, 현실성, 준비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진로준비행동

김봉환[16]은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차원을 말한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계현[17]은 진로준비행동의 요인을 자기 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을 위한 행동과 직접 취업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행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였다. 장지선[18]은 대학생 시기의 진로 탐색과 결정 및 준비는 졸업 후의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기본적인 형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적성 및 능력이 그 직업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과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 및 자기가 노력해야 할 부분을 파악한 후,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자신에 대한 정보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탐색행동과 자신이 목표로 한 진로 및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실질적 준비를 하는 준비행동

으로 정의한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으로는 탐색 행동, 준비행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진로태도성숙도

염주연[14]은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진로성숙태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진로성숙태도의 하위영역 가운데, 진로를 선택·결정하기 위해서 집단상담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계획성에 있어서 자기의 진로를 선택, 결정하기 위하여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수집하고 해석하며, 그 기초 위에서 자기 자신의 진로방향을 설정해 보고 계획하는 정도가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들보다도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립성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진로선택이나 탐색, 결정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것 역시 진로집단상담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은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 - 적성, 능력, 흥미, 성격 등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이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결정성 역시 진로집단상담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더욱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였다. 김희숙[19]은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생의 진로태도 성숙도가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진로태도 성숙도 하위 영역 가운데, 준비성과 현실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송태우[13]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에서 결정도 영역, 관여도 영역, 독립도 영역, 선택의 태도 영역에 대하여 효과가 있었으나 나머지 하위영역인 타협도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서영석[6]은 진로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진로태도성숙도 검사에서 결정성 차원, 준비성 차원, 독립성 차원, 확신성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으나, 목적성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타내지 못했다. 손지윤[20]은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전문계 여자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영역인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 결정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허정철[21]은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가운데 결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직업의 세계 이해'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가운데서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5.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진로준비행동

김남진[22]은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희망직업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과제를 주고,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유형검사를 직접 실시하여 자기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면서 직업적 탐색과 진로목표를 설정하게 도와 주었던 것이 진로준비행동 점수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박완성[23]도 진로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위해서 21세기 신종 직업 및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을 명료화하는 과정이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선영·홍지영[24]은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적성 및 진로탐색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하였다. 장해숙 등[25]은 진로집단상담을 실시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직업을 탐색하고 실제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경력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명료화하는 과정 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에게 직업정보 제공활동과 더불어 실제 그들이 갖추어야 할 인적자원의 자질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태도성숙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이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2.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은 [표 1]과 같이 11회기로 구성되었으며, 한 회기당 90분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도입 및 신뢰감 형성,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기본 욕구, 원하는 것 평가, 선택에 대한 평가 및 계획, 평가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표 1.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 회기 | 단 계 | 활동내용 | 시간 |
|----|--------------------------|----------------------------------|-----|
| 1 | 도입 및 신뢰감 형성 | 자기소개하기 프로그램안내 | 90분 |
| 2 |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기본욕구 | MBTI검사 기본 욕구 이해 | 90분 |
| 3 | | 나의 장·단점알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 90분 |
| 4 | 원하는 것 평가 | 진로목표에 대한 자기이해 | 90분 |
| 5 | | 직업탐색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이해 | 90분 |
| 6 | | 직업탐색 선배초청특강 | 90분 |
| 7 | | 다양한 직업의 이해와 선택 기관방문 | 90분 |
| 8 | | 관심있는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방문 인터뷰 발표 | 90분 |
| 9 | | 선택에 대한 평가 계획 | 90분 |
| 10 | 나의 꿈 나의 미래이력서 작성 및 발표 | 90분 | |
| 11 | 평가회의 | 프로그램에 대한 종결 및 평가 | 90분 |

3. 실험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 test-Post test Group Design)로써 독립변인은 실험집단에게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것이고, 그에 따른 종속변인은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점수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사전-사후검사 실험 설계

| 집단 | 사전검사 | 프로그램진행 | 사후검사 |
|------|----------------|----------------|----------------|
| 실험집단 | O ₁ |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x) | O ₂ |
| 통제집단 | O ₃ | | O ₄ |

실험집단: 진로집단프로그램실시, 통제집단: 프로그램실시하지 않음

4.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2013년 3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11회기에 걸쳐 실시하였고, 광주광역시 K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수락한 대학생 30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5명씩 배치하였다.

5. 연구도구

5.1 진로태도성숙도

진로태도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기학과 한종철 [26]이 제작한 것을 수정하여 재구성 하였다. 이 척도에는 결정성(9문항), 현실성(12문항), 준비성(9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진로태도성숙도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

| 하위 영역 | 내용 | 해당문항번호 | 사전 (a) | 사후 (a) |
|-------|--|---------------------------------|--------|--------|
| 결정성 |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하는 정도 | 1,2,3,9,14,15,16,18,23 | .76 | .72 |
| 현실성 |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상황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정도 | 4,5,7,8,10,17,19,20,22,25,28,29 | .74 | .75 |

| | | | | |
|-----|---|---------------------------|-----|-----|
| 준비성 |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정도 | 6,11,12,13,21,24,26,27,30 | .81 | .86 |
| 합계 | | 총 30문항 | | |

1.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봉환[16]이 연구 개발한 척도에 이명숙[27]이 인터넷을 이용한 진로정보 제공과 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등의 진로상담 기관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두 문항을 추가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탐색행동(13 문항), 준비행동(5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값은 [표 4]와 같다.

표 4.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

| 하위 영역 | 내용 | 해당문항번호 | 사전 (a) | 사후 (a) |
|-------|--|-------------------------------|--------|--------|
| 탐색 행동 | 개인이 앞으로의 진로에 관한 상담, 인터넷검색, 기관 방문 및 인터뷰 등에 참여한 행동 | 1,2,3,4,5,6,7,8,9,10,11,12,13 | .73 | .76 |
| 준비 행동 |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입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행동 | 14,15,16,17,18 | .77 | .82 |
| 합계 | | 총 18문항 | | |

6. 자료분석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이 얼마 만큼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 1)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사전결과를 독립표본 t 검증하였다.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비교

가. 진로태도성숙도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t-test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 사전검사 비교

| 진로태도 성숙도 | 집단 (N=15) | M | SD | t | p |
|----------|--------------|------------------|----------------|-------|------|
| 결정성 | 실험집단 통제집단 | 3.3426 3.2968 | .4169 .4235 | .398 | .745 |
| 현실성 | 실험집단 통제집단 | 3.2986 3.3652 | .3187 .4973 | -.457 | .625 |
| 준비성 | 실험집단 통제집단 | 3.9722 3.8327 | .3320 .3142 | .375 | .836 |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태도성숙도 전 하위 영역에 걸쳐 $p > .05$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나. 진로준비행동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준비행동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준비행동 사전검사 비교

| 진로준비 행동 | 집단 (N=15) | M | SD | t | p |
|---------|--------------|------------------|----------------|-------|------|
| 탐색활동 | 실험집단 통제집단 | 2.4861 2.3995 | .5375 .5846 | .632 | .543 |
| 준비행동 | 실험집단 통제집단 | 2.3194 2.4591 | .7049 .7037 | -.233 | .901 |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진로준비행동에서 $p > .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가. 진로태도성숙도 사전·사후검사 비교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태도성숙도에 유의미

한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실시한 진로태도성숙도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 사전·사후검사 비교

| 진로태도성숙도 | 집단 | 사전검사 | | 사후검사 | | t | p |
|---------|----|--------|-------|--------|-------|-----------------|--------------|
| | | M | SD | M | SD | | |
| 결정성 | 실험 | 3.3426 | .4169 | 3.7130 | .3013 | -3.141 -.497 | .009 .671 |
| | 통제 | 3.2968 | .4235 | 3.3152 | .4328 | | |
| 현실성 | 실험 | 3.2986 | .3187 | 3.3750 | .2025 | -1.130 .435 | .283 .735 |
| | 통제 | 3.3652 | .4973 | 3.3297 | .5673 | | |
| 준비성 | 실험 | 3.9722 | .3320 | 4.1944 | .3420 | -2.538 .653 | .028 .516 |
| | 통제 | 3.8327 | .3142 | 3.7854 | .4342 | | |

위 [표 7]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 하위 영역가운데 결정성, 준비성 영역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현실성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가운데, MBTI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취업선배의 특강,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직무에 대한 소개, 학과 취업로드맵 및 자격증 소개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성 영역에서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직업을 통해 현실적으로 출세하거나 봉급을 많이 받는데 관심이 있기 보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만족도 때문에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나. 진로준비행동 사전·사후검사 비교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실시한 진로준비행동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준비행동 사전·사후검사 비교

| 진로준비행동 | 집단 | 사전검사 | | 사후검사 | | t | p |
|--------|----|--------|-------|--------|-------|-----------------|--------------|
| | | M | SD | M | SD | | |
| 탐색활동 | 실험 | 2.4861 | .5375 | 3.8542 | .3926 | -8.495 -.452 | .000 .661 |
| | 통제 | 2.3995 | .5846 | 2.4315 | .4443 | | |
| 준비행동 | 실험 | 2.3194 | .7049 | 3.0556 | .5700 | -4.077 -.247 | .002 .856 |
| | 통제 | 2.4591 | .7037 | 2.4176 | .6287 | | |

위 [표 8]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진로준비행동하위영역 가운데 탐색활동, 준비행동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가운데 기관방문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취업을 원하는 곳에 직접 방문해서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미래이력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행동을 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도 하위 영역가운데 결정성, 준비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현실성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MBTI 검사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학기초에 취업선배의 특강을 통해 대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학과자격증 및 취업분야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자세 및 자격증 및 기술 등을 배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성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직업을 통한 출세,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과 같은 현실적인 면보다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에 대한 사명감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영역인 결정성 및 준비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염주연[14], 송태우[13], 서영석[6], 손지윤[20], 허정철[2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영역인 현실성 차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김희숙[1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 하위 영역가운데 탐색행동, 준비행동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가운데 학생들이 관심있는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기관방문 인터뷰’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 어떠한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가운데 ‘미래이력서 작성 및 발표’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있는 분야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고, 학과에서 실시하는 특강 및 경진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이와 같이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김남진[22], 박완성[23], 최선영·홍지영[24], 장해숙 등[2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대상자의 수와 선정에서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 결과를 전체 여대생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적 분포를 골

고루 하고, 표본 선정 인원수를 늘리며, 질적연구 내용을 더욱더 보완함으로써 연구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E. L. Tolbert,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0.

[2] 이재창, “진로교육과 개인의 특성 발전”, 진로교육연구, 제12권, pp.1-50.

[3] L. W. Oliver and A. R. Spokane, “Career-intervention outcome: What contributes to client gai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pp.174-181, 1988.

[4] 이형득,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8.

[5] 이장호, 김정희,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서울: 법문사, 1997.

[6] 서영석, *REBT를 적용한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7] 윤희선,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 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8] 장해숙,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 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9] D. E. Super, *The psychology of career*, New York: Harper & Row, 1970.

[10] J. O. Crites,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1981.

[11]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1.

[12] 지용근, *대학생의 가치관명료도가 진로태도 성*

속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3] 송태우, *진로인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4] 염주연, *진로선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5] 최경희,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6]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7] 김계현,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2.

[18] 장지선,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9] 김희숙, *진로탐색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0] 손지윤,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전문계여자고등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 - 진로태도성숙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1] 허정철,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27-236, 2012.

[22] 김남진,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3] 박완성,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결정수준·진로정체감·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pp.203-216, 2005.

[24] 최선영, 홍지영, “*독서활동을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여자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

럼, 제33권, pp.62-86, 2012.

[25] 장해숙, 김순미, 이현림, “*커리어 로드맵을 적용한 진로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제21권, 제4호, pp.81-97, 2008.

[26] 이기학, 한종철,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10권, 제1호, pp.167-189, 1998.

[27] 이명숙,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저 자 소개

허 정 철(Jeong-Cheol Heo)

정회원



- 1994년 2월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아동복지, 사회복지시설천분야